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현안해부 No.16-54
2016-11-18

트럼프 조세정책 공약과 한국에 주는 교훈

현 진 권
자유경제원 원장

□ 트럼프 조세공약의 특징

- 조세공약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는 것임. 그 결과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 낮아지고, 세후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투자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이어짐.

- 트럼프 조세공약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노믹스 철학(낮은 세금으로 더 일하게 하는 공급주의 경제학,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과 같이하는 것임.
o 레이건은 상대적으로 소득세 감세 폭이 크게 나타나, 집권 전에는 최고한계세율이 70%에서 집권 말기에 28%로 낮추었음.
o 레이건은 집권 후에 법인세 최고한계세율을 46%에서 34%로 낮추었음. 트럼프 공약은 법인세에서 레이건보다 훨씬 혁신적인 안을 담고 있음. 이는 국제경제 환경의 개방화 속도와 관계가 있을 것임. 레이건 시절은 세계 경제의 개방화가 시작하는 시기였다면, 트럼프 시기는 개방화로 인해 법인세 역할이 레이건 시절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

- 트럼프의 노동세금(소득세)와 자본세금(법인세) 공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득세

- 현재 7단계 소득구간이며 최고한계세율 39.6%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12%, 25%, 33%로 낮춤.
o 소득세 공약의 특징은 감세와 조세 단순화로 표현할 수 있음.

2) 법인세
- 현행 최고한계세율 35%에서 15%로 낮춤.
o 누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15%로 최고한계세율을 낮추는 안은, 실질적으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방향임.

- 미국내 제조업종에 대해선 투자자산의 감가상각을 100% 허용함.
o 이는 획기적인 법인세 감면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보다 자본비용 하락효과가 더 클것임. 레이건은 1981년에 감가상각 정책을 경제적 감가보다 훨씬 기업에 유리한 가속상각을 허용한 획기적인 개혁을 하였음. 이후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감가상각 정책임.
o 투자자산에 대한 100%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소비기반세제(consumption based taxation) 체제의 전단계로 가는 것임.
o 이 개혁으로 인해 레이건 공급주의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질 것임. 레이건 정책은 낮은 세금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세수는 증가할수 있다는 철학인 반면, 트럼프 공약에선 100% 감가상각 허용으로 인해 경제활성화는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세수는 10년 후에도 증가하지 않을 것임.
- 최소한세제(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폐지

3) 상속 및 증여세 폐지
- 미국의 조세정책은 형평성에 가치를 두었으며,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비교적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있음. 공약에는 새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도 성장을 위해 가감히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o 개방화 시대에 상속세 정책이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이를 따르는 정책임.

□ 조세공약의 경제적 효과

1) 전체 경제적 효과

- 아래 표는 조세공약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해서 보여줌.
o GDP 효과는 공약으로 인해 2016-2025년에 추가적으로 6.9-8.2% 증가함으로 보여줌. 공약이 없을때 미국 GDP 증가율은 19.2%로 추계됨을 볼때, 조세공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10년 후에 26.1-27.4% 증가 효과를 보여줌. 6.9% 성장률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공약의 기여분을 보면, 2.4%, 4.5%로 법인세의 성장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o 고용효과를 보면, 공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10년 후엔 1,807천-2,155천명 고용효과를 전망함.

Table 2. Economic Impact of the Trump Plan	
GDP	6.9% / 8.2%
Capital Investment	20.1% / 23.9%
Wage Rate	5.4% / 6.3%
Full-time Equivalent Jobs (in thousands)	1,807 / 2,155
Source: Tax Foundation Taxes and Growth Model, March 2016 Note: Numbers are listed with the higher-rate assumption first and the lower-rate assumption second.	

2) 세수효과

- 세수효과를 보면,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수적 계산을 하면, 2016-2025년간에 세수감소가 총 4.3조-5.9조 달러임. 경제성장 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계산에 의하면 세수감소가 2.6조-3.9조 달러로 줄어듬.
o 경제성장 효과를 고려해도 법인세수에선 오히려 감소액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것은 100% 감가상각에 따른 효과가 10년 동안에 세수효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10년 이후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효과를 가질 것임.

3) 소득계층별 경제적 효과

Table 3. Ten-Year Revenue Impact of the Trump Tax Plan (Billions of Dollars)		
Tax	Static Revenue Impact (2016-2025)	Dynamic Revenue Impact (2016-2025)
Individual Income Taxes	-$2,192 / -$3,730	-$1,058 / -$2,458
Payroll Taxes	$0	$520 / 612
Corporate Income Taxes	-$1,936	-$1,958 / -$1,959
Excise Taxes	$0	$44 / $52
Estate and Gift Taxes	-$240	-$240
Other Revenue	$0	$52 / $62
TOTAL	**-$4,368 / -$5,906**	**-$2,640 / -$3,932**

Source: Tax Foundation Taxes and Growth Model, March 2016.
Note: Individual item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Numbers are listed with the higher-rate assumption first and the lower-rate assumption second, where applicable.

- 조세공약으로 인한 계층별 소득증가 효과를 보면, 단순한 산수적 계산에 의하면 중산층 이하의 소득 증가율은 낮은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성장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계산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증가율을 보여줌.

o 일반적 성장정책은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경제효과를 고려하면, 그 열매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보여줌.

Table 6. Static and Dynamic Distributional Analysis		
Changes in After-Tax Incomes		
Income Group	Static	Dynamic
0% to 20%	1.2%	6.9% / 8.1%
20% to 40%	0.8%	6.7% / 7.9%
40% to 60%	1.3%	7.7% / 9.0%
60% to 80%	1.9%	7.9% / 9.0%
80% to 100%	4.4% / 6.5%	8.7% / 12.3%
90% to 100%	5.4% / 8.3%	9.3% / 13.7%
99% to 100%	10.2% / 16.0%	12.2% / 19.9%
TOTAL	**3.1% / 4.3%**	**8.2% / 10.7%**

Source: Tax Foundation, Taxes and Growth Model (March 2016 version)
Note: Returns with Positive Income. When two numbers are listed in a column, the number on the left reflects the higher-rate assumption and the number on the right reflects the lower-rate assumption.

4)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효과

- 상속 및 증여세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더 일할려는 경제적 유인을 주므로,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는 큼. 앞의 분석에서 상속 및 증여세 폐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효과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o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상속재산 대비 상속세 부담수준이 약 20%로 매우 높으므로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는 충분히 가짐.

□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미국이 법인세 인하 전에도 전 세계의 법인세는 단일세율로의 단순화, 세율 인하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 방향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
o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개방 소규모 경제국가들은 낮은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법인세 정책을 통해 민감하게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반면, 미국은 정책 leader 입장이므로 법인세 인하에 소극적이었음.

- 미국의 법인세율 대폭인하로 인해 전세계 법인세율에 급격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음.
o 미국이 15%로 인하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아일랜드 12.5%, 스위스 8.5% 국가 뿐임.

- 한국은 최고구간의 법인세 한계세율을 현행 22%에서 오히려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므로, 한국은 법인세 정책에서 국제조류에 역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임.
o 이는 곧 한국은 기업활동하기 나쁜 국가가 됨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가계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임.
o 미국은 트럼프의 조세공약으로 더욱 성장하는 국가가 되는 반면, 한국은 정확하게 트럼프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퇴보로 갈 것임.

<참고문헌>

Cole, Ala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Donald Trump Tax Reform Plan," Fiscal Fact, No. 528, Sept, 2016. Tax Foundation.

19-Feb-15

Historical Highest Marginal Income Tax Rates

Year	Top Marginal Rate	Year	Top Marginal Rate	Year	Top Marginal Rate
1913	7.0%	1948	82.13%	1983	50.00%
1914	7.0%	1949	82.13%	1984	50.00%
1915	7.0%	1950	84.36%	1985	50.00%
1916	15.0%	1951	91.00%	1986	50.00%
1917	67.0%	1952	92.00%	1987	38.50%
1918	77.0%	1953	92.00%	1988	28.00%
1919	73.0%	1954	91.00%	1989	28.00%
1920	73.0%	1955	91.00%	1990	28.00%
1921	73.0%	1956	91.00%	1991	31.00%
1922	58.0%	1957	91.00%	1992	31.00%
1923	43.5%	1958	91.00%	1993	39.60%
1924	46.0%	1959	91.00%	1994	39.60%
1925	25.0%	1960	91.00%	1995	39.60%
1926	25.0%	1961	91.00%	1996	39.60%
1927	25.0%	1962	91.00%	1997	39.60%
1928	25.0%	1963	91.00%	1998	39.60%
1929	24.0%	1964	77.00%	1999	39.60%
1930	25.0%	1965	70.00%	2000	39.60%
1931	25.0%	1966	70.00%	2001	39.10%
1932	63.0%	1967	70.00%	2002	38.60%
1933	63.0%	1968	75.25%	2003	35.00%
1934	63.0%	1969	77.00%	2004	35.00%
1935	63.0%	1970	71.75%	2005	35.00%
1936	79.0%	1971	70.00%	2006	35.00%
1937	79.0%	1972	70.00%	2007	35.00%
1938	79.0%	1973	70.00%	2008	35.00%
1939	79.0%	1974	70.00%	2009	35.00%
1940	81.10%	1975	70.00%	2010	35.00%
1941	81.00%	1976	70.00%	2011	35.00%
1942	88.00%	1977	70.00%	2012	35.00%
1943	88.00%	1978	70.00%	2013	39.60%
1944	94.00%	1979	70.00%	2014	39.60%
1945	94.00%	1980	70.00%	2015	39.60%
1946	86.45%	1981	69.13%		
1947	86.45%	1982	50.00%		

Note: This table contains a number of simplifications and ignores a number of factors, such as a maximum tax on earned income of 50 percent when the top rate was 70 percent and the current increase in rates due to income-related reductions in value of itemized deductions. Perhaps most importantly, it ignores the large increase in percentage of returns that were subject to this top rate.

Sources: Eugene Steuerle, The Urban Institute; Joseph Pechman, Federal Tax Policy;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ummary of Conference Agreement on the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JCX-54-03, May 22, 2003; IRS Revenue Procedures, various years.

29-Jan-16

Corporate Tax Rate Schedule, 2015

Taxable Income Over	But Not Over	Tax Is		Of the Amount Over
$0	50,000		15%	0
50,000	75,000	$7,500 +	25%	$50,000
75,000	100,000	13,750 +	34%	75,000
100,000	335,000	22,250 +	39%	100,000
335,000	10,000,000	113,900 +	34%	335,000
10,000,000	15,000,000	3,400,000 +	35%	10,000,000
15,000,000	18,333,333	5,150,000 +	38%	15,000,000
18,333,333	—		35%	0

Source: Internal Revenue Service, 2014 Instructions for Form 1120

15-Feb-16

Taxation of Corporate and Capital Income (2014): Corporate Income Tax Rate [1]

Country	Central government corporate income tax rate [2]	Adjusted central government corporate income tax rate [3]	Sub-central government corporate income tax rate [4]	Combined corporate income tax rate [5]	Targeted corporate tax rates [6]
Australia*	30.0	30.0		30.0	Y
Austria	25.0	25.0		25.0	N
Belgium*	33.99 (33.0)	34.0		34.0	Y
Canada	15.0	15.0	11.3	26.3	Y
Chile*	20.0	20.0		20.0	Y
Czech Republic	19.0	19.0		19.0	Y
Denmark	24.5	24.5		24.5	N
Estonia*	21.0	21.0		21.0	
Finland	20.0	20.0		20.0	N
France*	34.43 (33.3)	34.4		34.4	Y
Germany*	15,825 (15,0)	15,825	14.4	30.2	N
Greece	26.0	26.0		26.0	Y
Hungary*	19.0	19.0		19.0	Y
Iceland*	20.0	20.0		20.0	Y
Ireland	12.5	12.5		12.5	Y
Israel*	26.5	26.5	0.0	26.5	Y
Italy*	27.5	27.5		27.5	N
Japan*	28.05(25.5)	26.2	10.8	37.0	Y
Korea	22.0	22.0	2.2	24.2	Y
Luxembourg*	22,47 (21,0)	22.5	6.8	29.2	Y
Mexico	30.0	30.0		30.0	Y
Netherlands*	25.0	25.0		25.0	Y
New Zealand*	28.0	28.0		28.0	N
Norway	27.0	27.0		27.0	Y
Poland*	19.0	19.0		19.0	N
Portugal*	30.0	30.0	1.5	31.5	Y
Slovak Republic	22.0	22.0		22.0	N
Slovenia	17.0	17.0		17.0	
Spain	30.0	30.0		30.0	Y
Sweden	22.0	22.0		22.0	N
Switzerland*	8.5	6.7	14.4	21.1	N
Turkey	20.0	20.0		20.0	N
United Kingdom*	21.0	21.0		21.0	Y
United States*	35.0	32.8	6.3	39.1	Y

2-Dec-15

Historical Corporate Top Tax Rate and Bracket: 1909-2014

Year	Top Tax Rate	Top Tax Bracket	Year	Top Tax Rate	Top Tax Bracket	Year	Top Tax Rate	Top Tax Bracket
1909	1%							
1910	1%		1945	40%	50,000	1980	46%	100,000
1911	1%		1946	38%	50,000	1981	46%	100,000
1912	1%		1947	38%	50,000	1982	46%	100,000
1913	1%		1948	38%	50,000	1983	46%	100,000
1914	1%		1949	38%	50,000	1984	46%	1,405,000
1915	1%		1950	42%	25,000	1985	46%	1,405,000
1916	2%		1951	51%	25,000	1986	46%	1,405,000
1917	6%		1952	52%	25,000	1987	40%	1,405,000
1918	12%		1953	52%	25,000	1988	34%	335,000
1919	10%		1954	52%	25,000	1989	34%	335,000
1920	10%		1955	52%	25,000	1990	34%	335,000
1921	10%		1956	52%	25,000	1991	34%	335,000
1922	12.50%		1957	52%	25,000	1992	34%	335,000
1924	12.50%		1958	52%	25,000	1993	35%	18,333,333
			1959	52%	25,000	1994	35%	18,333,333
1925	13%		1960	52%	25,000	1995	35%	18,333,333
1926	13.50%		1961	52%	25,000	1996	35%	18,333,333
1927	13.50%		1962	52%	25,000	1997	35%	18,333,333
1928	12%		1963	52%	25,000	1998	35%	18,333,333
1929	11%		1964	50%	25,000	1999	35%	18,333,333
1930	12%		1965	48%	25,000	2000	35%	18,333,333
1931	12%		1966	48%	25,000	2001	35%	18,333,333
1932	13.75%		1967	48%	25,000	2002	35%	18,333,333
1933	13.75%		1968	52.8%	25,000	2003	35%	18,333,333
1934	13.75%		1969	52.8%	25,000	2004	35%	18,333,333
1935	13.75%		1970	49.2%	25,000	2005	35%	18,333,333
1936	15%	40,000	1971	48%	25,000	2006	35%	18,333,333
1937	15%	40,000	1972	48%	25,000	2007	35%	18,333,333
1938	19%	25,000	1973	48%	25,000	2008	35%	18,333,333
1939	19%	25,000	1974	48%	25,000	2009	35%	18,333,333
1940	24%	38,566	1975	48%	50,000	2010	35%	18,333,333
1941	31%	38,462	1976	48%	50,000	2011	35%	18,333,333
1942	40%	50,000	1977	48%	50,000	2012	35%	18,333,333
1943	40%	50,000	1978	48%	50,000	2013	35%	18,333,333
1944	40%	50,000	1979	46%	100,000	2014	35%	18,333,333

Notes: Data refer to the top marginal tax rate on corporations. Unless otherwise mentioned, this is the tax rate applicable at the federal level on domestic companies. Different rates apply on non-resident/ foreign-owned companies.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may levy additional taxes. In addition,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may be higher due to the imposition of corporate level taxes on dividend or other distributions.

Exemptions, 1896-1935: 1896-1912: $5,000 exemption; 1913-1917: no exemption; 1918-1927: $2,000 exemption; 1928-1931: $3,000 exemption; 1932-1935: no exemption.

Bracket notes, 1936-1939: 1936-1937: The normal tax rate applicable on the first $2000 was 8%. The surtax on undistributed profits ranged from 7% to 27%; 1938-1939: The tax rate applicable on the first $25,000 was between 12.5% and 16%.

Other brackets and corresponding rates, 1940-1999: tax brackets and the corresponding tax rates were: 1940: First $25,000: 14.85% to 18.7%, $25,000 - $31,964.30: 38.3%, $31,964.30 - $38,565.89: 36.9%; 1941: First $25,000: 21% to 25%, $25,000 - $38,461.54: 44%; 1942-1945: First $25,000: 25% to 29%, $25,000 - $50,000: 53%; 1946-1949: First $25,000: 21% to 25%, $25,000 - $50,000: 53%.

Tax on first $25,000, 1950-1978; 1950: 23%; 1951: 28.75%; 1952-1963: 30%; 1954-1967: 22%; 1968-1969: 24.2%; 1970: 22.55%; 1971-1974: 22%; 1975-1978: 20% (next $25,000 was 22%).

Other tax brackets and the correponding tax rates, 1979-2009: 1979-1981: First $25,000: 17%, $25,000 - $50,000: 20%, $50,000 - $75,000: 30%, $75,000 - $100,000: 40%; 1982: First $25,000: 16%, $25,000 - $50,000: 19%, $50,000 - $75,000: 30%, $75,000 - $100,000: 40%; 1983: First $25,000: 15%, $25,000 - $50,000: 18%, $50,000 - $75,000: 30%, $75,000 - $100,000: 40%; 1984-1986: First $25,000: 15%, $25,000 - $50,000: 18%, $50,000 - $75,000: 30%, $75,000 - $100,000: 40%, $100,000 - $1,000,000: 46%, $1,000,000 - $1,405,000: 51%; 1987: First $25,000: 15%, $25,000 - $50,000: 16.5%, $50,000 - $75,000: 27.5%, $75,000 - $100,000: 37%, $100,000 - $335,000: 42.5%, $335,000 - $1,000,000: 40%, $1,000,000 - $1,405,000: 42.5%; 1988-1992: First $50,000: 15%, $50,000 - $75,000: 25%, $75,000 - $100,000: 34%, $100,000 - $335,000: 39%. The rate structure was designed so that a corporation with $335,000 or more in taxable income faced an effective tax rate of 34 percent on the entire amount of its taxable income; 1993-2009: First $50,000: 15%, $50,000 - $75,000: 25%, $75,000 - $100,000: 34%, $100,000 - $335,000: 39%, $335,000 - $10,000,000:
34%, $10,000,000 - $15,000,000: 35%, $15,000,000 - $18,333,333: 38%. The rate structure was designed so that a corporation with $18,333,333 or more in taxable income faced an effective tax rate of 35% on the entire amount of its taxable income.

Sources: 1909-2001: World Tax Database, Office of Tax Policy Research. Downloaded from http://www.wtdb.org/index.html on October 17, 2002.
2002-2014: Internal Revenue Service, Instructions for Form 1120.